

2021년 경기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 유의 사항

1. 답안은 어문 규정과 원고지 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2. 가급적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3.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
4. 아래의 경우는 '0'점 처리함
 - 암호 표시나 낙서 또는 기타 불필요한 표기를 한 경우
 - 1번 문항과 2번 문항 답안을 바꾸어 작성한 경우
 - 자신의 성명 또는 신분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021년 모의논술고사 문제지

| | | | |
|-------|--|-----|--|
| 수험 번호 | | 성 명 | |
|-------|--|-----|--|

[문항 1] **가**를 참조하여 **나**의 시적 의미가 어떠한 독창적 상상력을 통해 구현되는지 설명하고, **나**의 관점에서 **나**의 ㉠에 나타난 사람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를 논해보시오. (700 ± 50자)

가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의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dépaysement)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말로 흔히 '전치(轉置)'로 번역된다. 이는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데페이즈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쉽게 일탈해 무한한 자유와 공간으로 넘어가게 한다. 그런 점에서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대한 일종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법칙과 논리를 간단히 무장 해제해 버리는 파괴의 형식이다.

파괴의 형식으로서 데페이즈망은 매우 다양한 색깔을 보여 준다. 데페이즈망이 보여 주는 파괴는 다채롭고 무한하다. 그 말은 데페이즈망에 의한 창조 의 형식 또한 다채롭고 무한하다는 뜻이 된다. 프랑스의 미술사가 사란 알렉상드리아는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형식을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기, 보완적인 사물을 조합하기,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기, 미지의 차원을 열어 보이기, 생명체를 사물화하기, 해부학적 왜곡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미술가이자 비평가인 수지 개블릭은 사물을 원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 놓는 고립, 불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변형,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합성, 크기와 위치의 부조화, 우연한 만남, 동음이의적 이중 이미지, 역설, 시공에 관한 경험을 왜곡한 이중 시점을 마그리트가 구사한 대표적인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꼽는다. 파괴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지만, 그것이 곧 창조의 형식을 대상으로 한 언급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이주현,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 『고등학교 국어』

나

어떤 이는 눈망울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뻘뻘 나를 쳐다보기 일쑤,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뒤편 있으니 내 앉은 접시나 그들 앉은 접시나 매일반. 천 년 전이나 만 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나 매일반.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 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 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김선우, <깨끗한 식사>, 『고등학교 문학』

다

처음 우리 앞에 놓인 것은 탕평채였다. 가늘게 채 썬 목청포와 표고버섯, 쇠고기를 버무린 정갈한 음식이었다. 그때까지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내는, 웨이터가 자신의 접시에 탕평채를 덜어 놓으려고 국자를 드는 찰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좌중의 움직임이 멈췄다. 의아해하는 시선들을 한 몸에 받은 그녀는 이번엔 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사장이 호탕한 어조로 물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더러 있죠. 우리나라에선 이제 좀 형성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엔 언론에서 하도 육식을 공격해 대니…… 오래 살려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고기를 아주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사장 부인이 미소 띤 얼굴로 말했다.

아내의 접시가 하얗게 빈 채 남아 있는 동안, 웨이터는 나머지 아홉 사람의 접시를 모두 채운 뒤 사라졌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채식주의로 흘러갔다.

“얼마 전에 오십만 년 전 인간의 미라가 발견됐죠? 거기에도 수렵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요샌 사상 체질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체질을 알아보려고 몇 군데가 봤더니 가는 데마다 다른 얘길 하더군요. 그때마다 식단을 바꿔 짜 봤지만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저 골고루 먹는 게 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고루, 못 먹는 것 없이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원만하다는 증거죠.”

아까부터 아내의 가슴을 흘끔거리고 있던 전무 부인이 말했다.

<중략>

“다행이네요. 저는 아직 진짜 채식주의자와 함께 밥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를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찌 됐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꿈틀거리는 세발낙지를 맛있게 젓가락에 말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은 여자가 짐승 보듯 노려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겠죠.”

좌중이 웃음을 터뜨렸다.

한강, <채식주의자>, 『고등학교 문학』

[문항 2]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참고하여 비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기본 소득 제도가 갖는 의의를 논술하시오. (700 ± 50자)

가

아래 내용은 소유 권리의 원칙에 대한 주장이다.

1. 취득의 원칙: 재화의 최초 취득이 합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2. 이전의 원칙: 1을 통해 획득한 재화는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교환을 통해 이전될 때 정의로롭다.
3. 부정의 교정 원칙: 1, 2를 따르지 않은 부당한 취득은 교정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나

아래 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에 발표한 암 환자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요인을 소득 수준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 구분 | 소득 수준 | | | |
|-----------|-------|------|------|------|
| | 하 | 중하 | 중상 | 상 |
| 미치료율(%) | 21.2 | 20.4 | 17.2 | 15.5 |
| 경제적 이유(%) | 29.9 | 18.2 | 10.5 | 6.2 |

『고등학교 사회』

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부는 경제 영역의,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원칙과 절차, 그리고 서로 다른 주체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경제 활동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로롭지 못합니다.

『고등학교 사회』

라

기본 소득(basic income)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적든, 일하든 하지 않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 제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 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기본 소득을 받기 위해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없다.

『고등학교 사회』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A-1]

<출제의도>

이 문항은 학생들이 미술과 문학이라는 상이한 예술영역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각 문학작품에 담겨 있는 내용과 표현방식을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를 새롭게 돌아보고 문학의 의의와 가치를 고찰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현대 회화의 주목할 만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소개한다. 데페이즈망을 "특정한 대상을 상식의 맥락에서 떼어 내 전혀 다른 상황에 배치함으로써 기이하고 낯선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이 실제 작품에 활용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형식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 시인은 인간이 육식을 하건 채식을 하건 불가피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아픈 인식을 드러내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두려움과 고마움의 마음을 상실한 현대의 음식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시인은 접시 위에 놓인 풀들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응시하는 존재로 그림으로써 어느 동물 못지않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강조하는가 하면 음식으로 희생된 동식물의 처지에 대한 공감 이 확장되는 가운데 "토막 난" 채 접시에 올려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까지 나아간다. 작품의 이같은 독특한 상상력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데페이즈망의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다)는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일부로서 채식하는 '아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담겨 있다. 채식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지는 이들의 대화에서는 오로지 인간의 건강을 위해 육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경박하게 펼쳐질 뿐, 인간의 음식을 위해 희생되는 생명들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제시문 (나)의 시인이 비판적으로 성찰한 바,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채점기준

[문항 A-1]

<채점항목>

- ① 제시문 (가)의 '데페이즈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 ② 제시문 (나)의 주제와 표현방식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분석력, 창의력, 논리력]
- ③ 제시문 (가)의 '데페이즈망'과 제시문 (나)의 표현방식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포착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 ④ 제시문 (다)에 나타난 사람들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시문 (나)의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해력, 추론력, 논리력]
- ⑤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기준>

| 등급 | 요건 |
|----|---|
|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또는 ③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
| C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② 또는 ④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하다. |
| D |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⑤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다. |
| E | 위의 요건 가운데 하나 정도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

출제의도 및 해설

[문항 A-2]

<출제의도>

이 문항은 사회 정의 및 불평등 현상을 현행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대안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표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분배 정의 관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제시된 새로운 제도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항해설>

제시문 (가)는 노직의 소유 권리의 원칙으로,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권이 정당하다고 보고, 개인 소유권의 우선적 보장이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암 환자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미치료 비중이 높고,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 비중도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의 차이가 의료 혜택 및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왈처가 주장한 정의의 원칙으로, 왈처는 부, 권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있어서 한 영역의 가치를 우월적으로 가진다고 다른 영역의 가치도 쉽게 얻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다.

제시문 (라)는 최근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 소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개인에게 소득이나 노동 관련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시문 (가)는 합법적 재화 취득/이전에 기반한 개인의 소유 권리 보장은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시문 (나), (다)를 보면 개인이 소득과 같은 경제 영역의 가치를 많이 소유할 경우, 건강이나 의료 등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하는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다)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의 주장은 한계가 있고 (나)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제시문 (다)의 기본 소득 제도는 (가)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는 일괄적인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나), (다)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에,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의의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채점기준

[문항 A-2]

<채점항목>

- ① 제시문 (나)에서 소득 격차로 인한 건강/의료 불평등 상황을 제시문 (다)의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가? [분석력, 이해력, 추론력]
- ② 제시문 (가)의 소유 권리 원칙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고, (가) 주장이 제시문 (나), (다) 상황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가? [이해력, 논리력, 분석력]
- ③ 제시문 (라)의 기본 소득 제도를 이해하고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추론력, 이해력, 논리력]
- ④ 어문규정, 원고 분량 등을 지키고 있는가? [구성력, 표현력]

<채점기준>

| 등급 | 요건 |
|----|---|
| A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
| B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하나가 다소 미흡하다. |
| C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그 중 ①, ②, ③, ④ 가운데 둘이 다소 미흡하다. |
| D | 위의 요건 가운데 ①, ②, ③, ④ 중 하나가 기술되지 않거나, 그 중 둘이 매우 불충분하다. |
| E | 위의 요건 가운데 둘 이상이 매우 불충분하게만 언급되어 있거나,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 |